저신용자 500만명 대출부담 줄인다

신용등급 10단계로 세분화해 금리·한도 혜택

7·8 등급도 은행대출 가능…금감원 9월부터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재분류된다.

이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채무조정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재분류 대상은 주로 7~8등급에 분포된 약 500만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개발,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7~8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금융권의 주된 고객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 체계의 7등급은 354만명, 8등급은 199만명으로 7~8등급은 모두 553만명이다.

재분류 기준은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다. 1000점을 만점으로 삼아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는다.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KCB 관계자는 "재분류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가 차등화하도록 설계했다"며 "신규대출 신청자 기준이라 실제 적용 범위는 유동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체계에서 7~8등급이라도 비우량 평가시스템으로 등급을 잘 받으면 금융회사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들과 함께 추진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와 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돼 이들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5%대 금리 비중이 84.1%를 차지하는 은행과 20~30%대 고금리가 일반적인 제2금융권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은행 대출 탈락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분기 보금자리론 2조7천억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크게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분기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2조6675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634억원)보다는 29.3%, 전분기(1조9847억원)보다는 34.4% 급증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공급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리 유형별로는 10~30년 만기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이 86.0%였고 연소득 5천만원이하 저소득층에 금리를 최고 1%포인트까지 깎아주는 우대형이 14.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요건(소득·주택가격)이 완화돼 2분기 우대형 공급 실적(3730억원)은 전년 동기(1100억원)보다 236% 증가했다. 신청 경로별로는 기본형보다 이자율이 0.4%포인트 낮은 인터넷 전용 상품 '유-보금자리론'이 전체의 92.1%를 점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잔액 증가 9년만에 최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012년 5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5.5%라고 10일 밝혔다. 월별 통계치가 존재하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6~10%인 대출 증가율이 2011년 8월(8.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4월엔 처음으로 5%대(5.9%)로 내려앉은 데 이어 5월엔 한풀 더 꺾였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현재 642조7000억원이다. 전달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나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 속도는 떨어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조7000억원이 늘어난 393조8000억원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어난 456조7000억원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보다 1조원 늘어난 186조1000억원이다.

이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작년 대비 10.6%로 2011년 7월(15.4%) 이후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언밸런스'로 여름 멋쟁이 1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5층 여성의류 매장에서 직원들이 치마 앞뒤 길이가 다른 비대칭 스타일의 '언밸런스 디자인 스커트'를 선보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화순탄 열량 미달로 국제망신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22〉

나주 호남비료 유치 도민운동 ⑦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 시공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끊이지 않았다. 완공단계의 조립탑을 부수고 재시공하고 다 된 도로공사를 파 엎고 새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공상의 시행착오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이 진전되고 기계부품들이 조립돼 공장이 부분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어처구니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기술적인 결함이나 시공상의 차원이 아니라 공장 가동과 직결되는 원천적인 문제였다.

루루기사는 우리 측이 제시한 연료 에너지와 공업용수의 데이터를 근거로 공장의 기본설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시한 이 데이터는 루루기사의 시험가동에서 들어난 데이터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열량이나 공업용수의 용량이 가동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제시한 에너지와 공업용수로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로서는 공장가동의 기본요건인 에너지와 공업용수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자원에 대한 우리의 데이터가 틀렸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화순탄 시료 채취과정 조사

에너지의 경우 당초 나주호비는 공장의 동력원을 유류 대신 석탄으로 하는 원설계를 발주했었다. 외화절약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순탄광의 석탄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주호비는 연료의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화순탄의 시료를 루루기사에 보냈고 루루기측에서는 이 화순탄의 시료 분석실험을 통해 열량 규격의 적합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화순탄으로 시험가동을 해본 결과 당초에 시료를 분석실험했던 화순탄보다 열량이 턱없이 모자라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어이가 없게 된 정부는 우리 측과 루루기 측의 기술진이 합동으로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당초 나주호비가 보낸 화순탄의 열량은 5900 내지 6300 칼로리였던데 비해 시험가동에 사용한 화순탄 열량은 5300 내지 5600 칼로리에 지나지 않았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당초 나주호비가 루루기에 보낸 화순탄 시료의 정밀조사를 거쳐 이 시료의 채취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화순탄 시료요구에 강원탄 보내

이 조사과정에서 당초 나주호비가 루루기사에 보낸 화순탄의 시료는 화순탄이 아니라 강원도의 장성 봉명(長省 鳳鳴)탄이었음이 밝혀졌다. 서울 출장 중인 나주호비 실무직원이 루루기 측에서 화순탄의 시료를 요구하자 시간도 촉박하고 또 탄은 다 같은 탄이라는 생각에서 서울 시중에 아무데다 흩어져 있는 연탄공장의 원탄을 담아 제출했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 탄과 시험가동 때의 탄이 다르다는 루루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 초 우리나라 비료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호남비료는 어처구니 없는 무지로 국제망신을 산 꼴이 됐다.

이 화순탄의 열량미달은 나주호비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루루기 측은 연료탄을 강원탄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주호비로서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순탄이 t당 2300원인데 비해 강원탄은 3500원으로 화순탄 보다 50% 이상이 더 비싸 생산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시료분석땐 화순탄, 시험가동땐 강원탄 사용

공장가동 불가능 판정…건설공사 지장 막대

위 증 (언론인)

KJB 사랑샘터 25호점 '순천성신원'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0일 오전 순천 소재 아동생활시설인 '순천성신원'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윤결 회장, 정오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 사랑샘터 25호점' 선정식과 후원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광주은행과 광은리더스클럽은 KJB 사랑샘터 25호점 선정을 기념해 각각 200만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KJB사랑샘터 25호점'으로 선정된 '순천성신원'은 1957년에 설립한 아동시설로 소외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직원 20여명과 보호아동 60여명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JT 조이 트래블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국 내 오렌지호 &스타크루즈호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실속 ₩109,000~ 품격 ₩139,000~
장흥-제주도 실속 ₩149,000~ 품격 ₩15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석식,수송비(광주-목포&장흥)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3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유류할증료, 석식,수송비(목포-광주)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 여름 성수기 별도문의바랍니다.

울릉도 2박 3일 ₩325,000~ 1박 2일 ₩294,000~
홍도,흑산도 1박 2일 ₩189,000~

미 주

★ 미서부 3대캐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9일 ₩1,990,000~
★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백), 나이아가리 일주 9일 ₩2,590,000~
★ 미서부(3대캐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13일 ₩3,190,000~
불포함:유류할증료(₩430,000),가이드/기사팁

일 본 여름휴가철 전 저렴하게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1,100m 높은 고지대 구중산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 키타큐슈 4일 ₩589,000
출발일 8/3, 8/5,8/11

★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439,000
[품격] 출발일 8/16, 8/19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 가족과 함께 일본 고급펜션 4일 ₩379,000
출발일 8/18, 8/22, 8/28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 청단품이 아름다운 유후단케 등반 4일 ₩379,000
출발일 8/18, 8/22, 8/28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599,000
출발일 8/5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기~~!!

★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일
출발일 8/19 ₩899,00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3일 ₩729,000
출발일 8/19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팁

동남아

3박4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 8/4, 11
3박5일 방콕 파타야 ₩799,000~ 출발일 : 7/31, 8/7, 14
불포함 : 개인경비, 가이드및기사팁, 유류할증료

★ 베트남 북부/캄보디아 6일 ₩669,000~ 출발일 : 9/4,7,11,14,18.21.25
₩929,000~ 출발일 : 9/27(추석연휴)
불포함:광주-인천 수송비, 택스&유류할증료(₩216,500/6월기준)기사&가이드팁, 급행비자비($25), 공동경비($10), 칼라사진1매 >>8명 이상 출발가능

★ 베트남 중부-다낭 5일 ₩849,000~ 출발일 : 7/19~8/17 ₩699,000~ 출발일 : 8/18~31
★ 베트남 중부-다낭 6일 ₩899,000~ 출발일 : 7/19~8/17 ₩749,000~ 출발일 : 8/18~31
불포함:광주-인천 수송비, 유류할증료(₩140,000/6월기준) 기사&가이드팁, 생수비($10) >>6명 이상 출발가능

유 럽 유럽으로 떠나자!

★ 서유럽 3국 8일 ₩3,190,000~
★ 서유럽 5국 10일 ₩3,490,000~
불포함: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택스

★ 시드니 완전 일주 6일 ₩1,670,000~
★ 호주/뉴질랜드 북섬 7일 ₩1,970,000~
★ [품격]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2,570,000~
★ [품격]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2,970,000~
불포함:개인경비, 기사&가이드팁, 유류할증료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